

오이 온실가루이, *Trialeurodes vaporariorum* (Westwood)에 대한 약제 방제 체계

정부근, 손경애, 이흥수, 신현열

경상남도농업기술원 병해충농약연구실

온실조건하에서 오이에 발생하는 온실가루이에 대한 방제체계를 확립하여 살충제 살포횟수를 줄이고자하였다. 방제체계는 온실가루이 발생초기와 중-후기로 나누어서 시행하였으며 발생초기에는 이미다클로프리를 제형별로 달리 처리하여 발생밀도의 차이를 조사하였고, 이어서 중-후기 조사에서는 약제의 계열별로 처리구를 달리하여 방제하였다. 온실가루이의 밀도변화를 처리구별로 지속적으로 관찰함은 물론 오이의 수량과 농약 잔류측면에서도 검토하였다. 시험결과 정식 35일후 조사하였을 때 이미다클로프리드 입제 토양혼화처리구에서 온실가루이 성충의 밀도가 가장 낮았으나 약제살포 시기를 늦출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. 중-후기 이후에 약제 계열 별로 오이 상위 5엽당 발생하는 온실가루이 성충의 밀도가 평균 30마리 이상 발생하는 것을 기준일로 하여 1-3일 이내에 약제방제를 실시하였을 때, 카바메이트계열의 약제인 푸라치오카브로 연속해서 방제하다가 퀴녹사린계열의 지노멘수화제로 방제한 구에서, 유기인계나 합성피레스로이드계열에 속한 살충제로 약종을 달리하여 살포하는 것보다도 살포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 원인은 부분적으로 푸리치오카브의 분해와 살충효력의 활성화와 연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. 이러한 살포횟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이의 개별 평균과중, 구별 평균과중, 곡과 비율로 나타난 상품과율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.